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나의 꿈에 다가가다

김○영 / 서울오○중학교

우리가 참가한 캠프는 2015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대한건축학회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이런 캠프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굉장히 떨리고 설레었다. 이번 경험은 나의 막연했던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다.

1일차에는 건축센터에서 이론과 건축모형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첫 강의는 홍○대학교 정○○ 교수님께서 하셨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그런지 설명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건축은 무엇인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등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1시간 정도 들은 후에 이후 1시간 동안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모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2일차에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축설계 일을 하고 있는 곳을 탐방했다. 우리는 그곳의 총관리팀장으로부터 건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하는 환경과 회사 건물 곳곳을 직접 보게 되었다. 건축사사무소는 생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팀원끼리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많고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조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3일차에는 ○○여대 캠퍼스 탐방을 했다. ○○캠퍼스를 돌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배려한 흔적이 느껴져 왠지 내가 기분이 더 좋았다. 나도 언젠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걸모습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배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캠프의 마지막 4일차가 되었다. 이번엔 제○대학교 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다. 주제는 건물의 공공성이었다. 건물의 공공성이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건축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 건축캠프는 대책 없던 나의 진로에 대해 엄청난 동기부여를 해주었던 것 같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던 설명과 여러 자료들을 접해 볼 수 있던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캠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닌 내 발로 직접 걸어 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직접 내 눈으로 보았던 것이었다. 이런 경험으로 건축에 대한 나의 꿈이 좀 더 분명해진 것 같다. 나처럼 진로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답을 얻고 싶다면 책상 앞에서 끙끙 앓지 말고 직접 이런 캠프를 찾아보고 참여하여 그 무엇보다 명확한 길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직접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딸에게

문○영

엄마의 자랑이었던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꿈이 없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정말 당황스러웠단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지역을 함께 여행했고, 학년에 맞는 계획을 세워 박물관, 미술관 등 다채롭고 알찬 체험학습도 나를 열심히 지원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꿈꾸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한 네게서 꿈이 없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처음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느껴지고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구나. 애꿎은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일찌감치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만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었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아빠와 진지하게 의논을 하기도 했었던단다.

돌이켜보니 사랑하는 너를 위해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과학관과 박물관, 미술관 수업을 신청했는데 정작 그 속에 너의 관심과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런 것이 너의 인생에, 진로에 도움이 되겠지 하는 엄마의 시각, 엄마의 주도로 이끌어 온 너의 삶에 네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알아보고 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딸아,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늦게 시든다는 사실은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진가는 힘든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말일 거야.

엄마는 우리 딸 ○현이가 지금은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고 꿈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을 잘 이겨 내면 더욱 더 발전되고 성숙한 네가 될 거라고 믿는단다. 조금하게 ‘꿈’을 억지로 생각해내서 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읽고 느끼면서 그중에서 자신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한다면 스스로 진로를 찾아나가는 큰 여정에 들어서게 될 거라 생각해.

하나의 작은 씨앗이 꽃과 열매를 피우기까지 따사로운 햇빛과 넉넉하게 품어주는 흙과 시원한 물, 바람 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엄마는 네가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며 성장해 나갈 때 늘 옆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단다. 엄마의 생각과 주관대로 엄마보다 더 큰 너를 재단하고 묶어두려고 하기보다는 네 스스로 마음껏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네 자신을 발견하며 가치 있는 것을 찾아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며 너를 기다려주는 것이 엄마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

사랑하는 딸아, 10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진로에 있어서도 사춘기 단계에 있는 것 같구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세상을 탐색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진로 사춘기 말이야. 번데기 과정을 거쳐 화려하게 변신하는 나비처럼, 답답하고 고민 가득한 진로 사춘기 과정을 거치고 새롭고 아름다운 비상을 꿈꾸는 우리 ○현이의 미래를 엄마가 응원하마. 사랑한다, 우리 딸!!